

카프로 · 울산화학 전면파업 선언

임금인상안 부결 노사협상 제자리 ... KP케미칼 · 한국포리올 조정신청

전국화학노조연맹 울산지역본부 산하 카프로와 울산화학 노조가 10월8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카프로 노조는 10월4일 기본급 3.5% 인상의 회사측 제시안 수용 여부를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7.8%의 반대로 부결되자 노조 집행간부와 대의원 29명이 파업에 먼저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측의 전향적인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10월8일 조합원 300여명이 모두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울산화학도 임금 인상안과 기타 요구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9월24일 전체 조합원 80여명이 모여 총회를 갖고 파업을 가결하고 10월8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화학노조연맹 산하 KP케미칼과 한국포리올, 한국알코올을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본부 산하 명화공업도 노사협상에 진전이 없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화학저널 2004/10/07>